**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7~1/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 아헹가/현천 역 | 선요가 | 6 | 도법스님의 신심 명강의:중도연기의 눈으로 본 깨달음의 노래 | 도법 | 불광출판사 |
| 2 |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 쫑카파 | 도서출판나란다 | 7 | 가려엮은아함경(재가자편) | 허정 엮음 | 지혜의나무 |
| 3 |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 김성철 | 오타쿠 | 8 | 붓다 중도로 살다:깨달음은 지금 여기 삶이 되어야 한다 | 도법 지음 | 불광출판사 |
| 4 | 한글아함경*재개정판 | 고익진 엮음 | 담마아카데미 | 9 | 논어별재(하) 공자가 들려주는 인생경험 | 남회근 | 마하연 |
| 5 |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법정스님 원적10주기 추모특별판 | 법정/김계윤 그림 | 불교신문사 | 10 | 절관론역주(선전총서3) | 우두법융 외/박건주 | 운주사 |

책세상

# 문화유산이 품은 '환상동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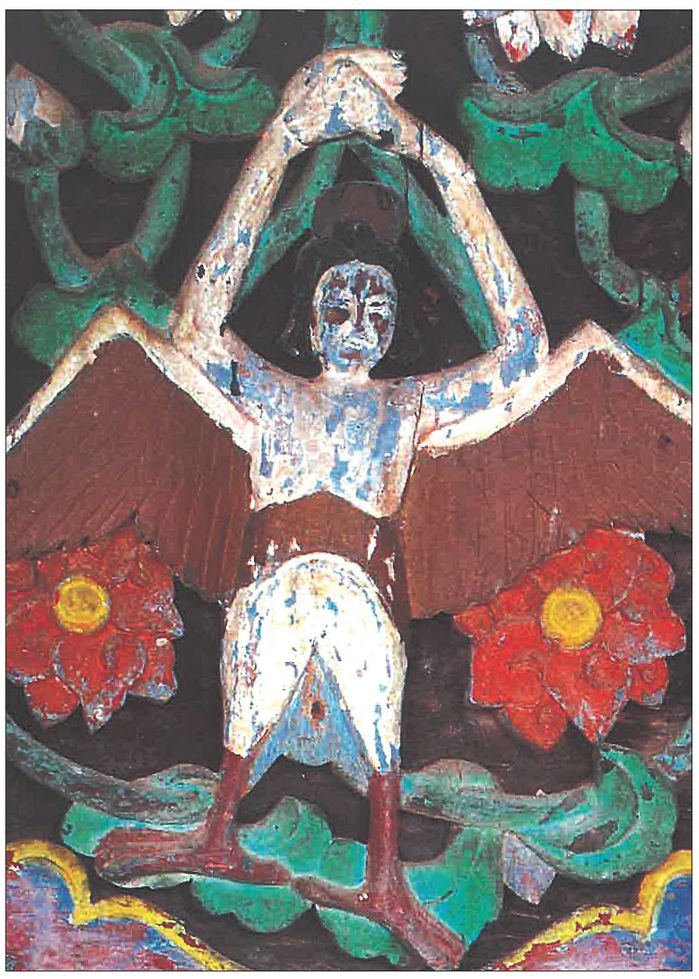


문화재에 숨은 신비한 동물사전
김용덕 지음
담앤북스/ 1만6800원

**가릉빈가, 인어, 선학, 천마 등**
**문화재에 숨은 환상동물 조명해**
**극락정토 등 동양 이상향 상징**
**인과응보 · 권선징악 의미 가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아미타 부처의 나라에는 언제나 갖가지 기묘하고 여러가지 빛깔을 지닌 백학과 공작새, 앵무새와 가릉빈가 등이 밤낮으로 하루종일 아름답고 고상한 음성을 낸다.**



17세기 조성된 환성사 대웅전 수미단의 가릉빈가.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다양한 등장인물에 얽힌 이야기와 설화를 모은 〈경률이상〉에 나오는 대목이다. 아미타 서방정토에서 노래하는 새 중 가릉빈가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동물이다. 가릉빈가는 산스크리어인 '카라빈카(kalavinka)'를 음역한 것으로 한자로는 호음조(好音鳥), 미음조(美音鳥)라고도 한다.

경전 속 가릉빈가는 부처님의 음성을 빗대어 표현할 때도 자주 보인다. 〈불설장아함경〉에는 "여래께서 자비로운 말로 연설하실 때 그 소리가 마치 가릉빈가와 같았네"라고 했으며, 〈구경일승보성론〉에서는 "부처님의 목소리는 가릉빈가처럼 미묘(美妙)한 음성"이라고 표현한다.

가릉빈가는 불화나 조각에서 표현될 때 인면조신(人面鳥身) 도상을 보인다. 이는 인도 산치 대탑에서부터 통일신라에 조성된 쌍봉사 철감선사탑비, 조선시대 환성사 대웅전 수미단까지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문화유산 속에는 이처럼 다양한 동물이 등장한다. 호랑이, 거북이, 사슴, 원숭이 등 실제 존재하는 동물도 있지만 가릉빈가, 용과 같이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동물도 있다.

〈문화재에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은 여러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활동한 김용덕 한국전통예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우리 문화재에 숨은 환상동물들을 직접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문화 안내서다.

저자가 다루는 문화유산 속 환상동물은 가릉빈가를 비롯해 기린, 뇌공신, 봉황, 선학, 인어 화상어, 천마 등으로 이들은 사찰 전각 벽화, 닫집, 수미단 등 곳곳 숨어 있다.

저자는 '미술은 곧 역사를 표방하는 매개체'라는 모토 아래 예술적 관점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 정치, 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환상동물에 대한 폭넓고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한다. 일반인들이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중적인 시각으로 환상동물을 설명한다.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환상동물이 표현된 문화재란 신비한 동물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 동양판 '신비한 동물 사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재 속 환상동물이 상징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자가 설명하는 첫 번째 상징은 이상세계, 즉 현실 속에 존재할 수 없는 환상의 세계인 유토피아다. 환상동물들이 뛰노는 장소야말로 동양적 유토피아인 극락정토, 태평성대, 무릉도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교훈이다. 환상동물은 이솝우화에 등장해 삶의 교훈을 전하는 여러 동물들처럼 우리에게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 탄생한 존재라는 것이다.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전달하는 우리 문화재 속 환상동물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책을 읽으면, 사찰에서 무심코 지나갔던 문화유산 속 동물들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저자 **김용덕**은?

울산 언양 출생.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에서 한국미술사를 전공하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울산대곡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연구원과 통도사성보박물관, 옥천사성보박물관, 안면도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재직했으며, 제2회 한국민화학회 학술논문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전통예술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문화유산 칼럼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술은 곧 역사를 표방하는 매개체'를 모토로 삼아 일반인들이 문화유산을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와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방대한 불교교리 핵심 꿰뚫다



나의 첫 번째 불교책
곽철환 지음
김영사/ 1만6800원

2600년 역사 속의 불교는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등 시대마다 모습을 달리하며 저마다의 사상을 꽃피웠다. 다양한 개론서와 입문서들에서 이를 길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설명을 반복해서 읽어도 불교 공부는 어렵다. 게다가 불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들은 한자를 봐도 이해하기 어렵고 원전어인 팔리어나 산스크리트 단어의 뜻을 찾아봐도 그 의미가 분명하게 와닿지 않는다. '어렵고 복잡해야 불교일까'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의 모든 것〉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시공 불교사전〉 등 여러 불교 안내서를 저술하며 30년 가까이 붓다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소개해온 저자 곽철환이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의 첫 번째 불교책〉을 썼다. 저자는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접근"하면, 즉 공부의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을 알면 불교 공부는 쉽다고 답한다.

이 책은 초기불교에서 선불교까지 각각의 교리적 주요 특징을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명료하게 짚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인도에서 시작한 불교는 남북방으로 전파되면서 각 지역의 언어로 경전과 율장, 논서가 번역됐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한문으로 번역된 경율론 삼장이 전해졌지만, 현대에는 팔리어본과 산스크리트본의 번역도 접할 수 있게 됐다. 한역 아함경과 팔리어본 니카야를 상호대조하고, 대승의 한역 경전과 산스크리트본 경전의 구절을 비교하며 불교의 여러 사상을 더욱 면밀히 탐구할 수 있게 됐다.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어떤 경전의 어느 구절이 공부에 더 적합한지 구별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

저자는 동국역경원에서 10여 년 동안 불교 경전의 한글 역경에 종사해왔고, 이후 팔리어본과 산스크리트본 경전을 섭렵하며 〈시공 불교사전〉을 비롯해 여러 불교 안내서를 30년 가까이 저술해 왔다. 이를 통해 각각의 교리에 가장 적합한 경전 구절을 선별할 수 있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이 책에서는 니카야와 아함부터 각종 논서와 선어록에 이르기까지, 불교 교리의 주요 개념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적확히 인용하여 교리와 사상의 요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불교, 즉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 "중도(中道)는 무슨 의미인가?"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진짜 뜻은 무엇인가?" "묵조선과 간화선은 어떻게 다른가?" "모든 존재에 불성(佛性)이 있다면서 왜 선사들은 '무(無, 없다)'라고 하는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불교 교리에 관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한마디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이 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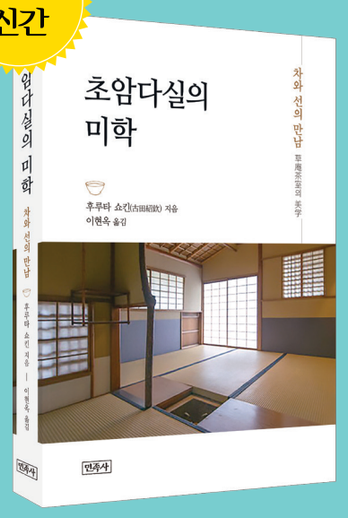
불교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처음 접하는 불교 입문서로 좋지만, 오래 공부했음에도 복잡한 교리와 사상을 확실히 안다고 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불교 공부에 중심을 잡아주는 개념 정리와 통찰이 담겨 있다.

2600년 전 붓다의 가르침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괴로움에서 괴로움의 소멸로, 분별에서 무분별로, 곧 마음의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나아가는 게 불교의 기본 골격"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가르침의 핵심"을 통찰하면 어떤 경전 어떤 논서를 보더라도 불교 공부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신중일 기자


차(茶)에 먹히지 않는 안내서, 차(茶)와 선(禪)은 하나다!

화제의 신간



초암다실의 미학
-차(茶)와 선(禪)의 만남-

"세상에 차를 마시는 사람은 많지만,
도(道)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차에 먹힌다."
여기서 도(道)는 불교의 선(禪)을 의미하는데
이 책은 차(茶)에 먹히지 않도록 차와 도의 접점을 초암다실의
미학적 구조를 통해 이미지로 보고 체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본문에서-

저자 후루타 쇼킨, 역자 이현옥 | 256쪽 | 22,000원

**저자 후루타 쇼킨**(古田紹欽, 1911.5.22.~2001.1.31.) 일본의 불교학자이며 문학박사.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인도철학과 졸업. 홋카이도대학, 일본대학, 하나조노대학 객원교수 등을 역임. 일본의 불교학자로 불교와 선을 사상적 측면에서 폭넓게연구. 대학시절에 인도철학이나 불교 관계에 대해 너무 난해한 강의를 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현대인도 알기 쉬운 언어로 불교를 해설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역자 이현옥**(李鉉沃)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강의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불어교육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졸업, 석사. 일본 토호쿠대학 대학원 연구생, 고려대학교 대학원 일어교육학과 석사. 동덕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대학원 문학박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차문화콘텐츠학과 석사.

나의 일상이 곧 수행이다!

선불교
생활 · 철학 · 문화로 본 선불교의 모든 것



禪

선불교가 활발했던 당송唐宋 시대
선종 사원의 생활과 철학,
그리고 선 문화 등을 통해
선불교와 선수행자의 삶을 들여다본다.

글 윤창화 | 562쪽 | 23,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